

이 글은 현대 가족 치료이론의 대표적인 '체계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약성서의 가족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구약성서가 오늘날의 가족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구약성서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실제의 삶에서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 가족 체계이론을 통해 본 구약성서의 가족이해

---

유 윤중 | 평택대 · 석 말숙 | 나사렛대 사복과

### 1. 시작하는 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서는 사고와 행위의 핵심적 기준이다. 기독교인들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제반적인 사회현상을 기독교적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삶의 모델을 건설하고자 할 때 일차적 근거를 성서에 둔다. 따라서 성서가 가족 문제라는 21세기의 주제와 만남을 시도하는 일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필자가 연구하려는 구약성서는 오늘날과는 시간적으로 약 3000-2000년 이상의 간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고대 근동 혹은 서아시아라는 간격이 있다. 그 시공간의 차이는 제도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져온다. 가족이라는 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가운데 최소의 단위로 그 구성은 주로 혈연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적 차이나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 제도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큰 차이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성서의 제도는 절대적 제도가 아니라, 시공간의 제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형사 취수법은 당시에 제한된 법이다. 그럼 그 당시의 법이므로 오늘날에는 무용지물로 치부하고 무시해야 하는가? 시공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학적 원칙은 무엇인가?

둘째, 성서는 그 당시의 제한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제도가 복잡한 21세기의 상황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가? 구약성서는 가족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구약성서는 모든 인류에게 등장하는 가족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제도의 개혁이나 가족이론의 발전을 주 관심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주 관심이 가족문제의 해결이 아닌 상황에서, 오늘날의 가족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가능한가?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족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가족관계나 가족 문제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구약성서 역시 시대에 따라 가족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즉 시공간의 허물을 벗겨내고 찾을 수 있는 알맹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위기’라는 주제는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가족 문제는 늘 있었다. 시대의 가치와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오늘날의 가족문제는 사회적 욕구와 체제의 다양함으로 인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의 구성원으로 이 사회에서 한 책임적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가족의 위기는 한 개인의 삶에서 위기일 뿐만 아니라, 확대된다면 우리 사회의 토대를 흔드는 위기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가족학에 대한 연구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가족에 대한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이제는 가족학 (Famology)이라는 독립된 학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가족학은 오늘날 사회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정신치료 및 상담치료, 교육학, 가

정학 등의 분야에 도입되어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관계로는 가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족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선적 원인론에 근거하여 문제나 증상을 정의하고, 환자의 병리나 과거사에 초점을 두는 정신 역동적 접근방법보다는 순환론적 원인론에 근거하여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며, 현재를 중시하는 체계적 가족치료로 이론이 변했다.<sup>2)</sup>

이 글에서 필자는 가족체계 이론을 통하여, 구약성서의 가족 체계를 분석하고, 가족체계 이론과 구약성서의 가족 체계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규명하며, 구약성서가 오늘날의 가족치료에 대한 다양한 예로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아울러 구약성서의 가족체계의 이해를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 한 개인이 가족, 이웃, 국가, 세계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을 일깨우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가족체계 이론

현재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체계적 접근이론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up>3)</sup>

프로이드의 이론에 근거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개인의 성격 형성 초기 발달단계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정신 내적 과정을 중요시한다.<sup>4)</sup>

행동주의적 가족이론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이며, 이 학습은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이에 대한 인간의 내적 반응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

1)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집」 제 1권 (1991), 2쪽.  
 2) 김 종욱,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전략적 가족치료와 체계론적 가족치료의 비교분석," 「신학논단」 20 (1992), 211쪽.  
 3) 고 병인, "목회와 가족상담," 「순신대학교 논문집」 제 3호 (1992), 223쪽.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가족 치료의 이론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김 종욱은 호프만(Hoffman)과 리틀(Liddle)의 의견에 따라 가족치료의 주요 이론을 6가지로 분류한다: 1) Bowen의 다세대적 접근, 2) 아우어스왈드(Auerswald)의 생태학적 접근, 3) 미누친 (Minuchin)의 구조적 접근, 4) 할레이 (Haley)의 전략적 접근, 5) 정신보건기구의 상호작용적 접근, 6) 셀비니-팔라조리 (Selvini-Palazzoli), 보스콜로 (Boscolo), 세친 (Cecchin), 그리고 프라타 (Prata) 등의 밀라노 (Milan) 그룹의 체계론적 접근. 김 종욱,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전략적 가족치료와 체계론적 가족치료의 비교분석," 「신학논단」 20 (1992), 211-212쪽을 보라.  
 4) 고 병인, "목회와 가족상담," 223쪽.

된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이란 개인에게 외적 자극을 제공하고, 또한 자극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중요한 외계로 보고 가족을 중요시한다.<sup>5)</sup> 그러므로 가족의 중요성은 인지하나, 가족을 개인문제의 원인이나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체계적 접근의 가족이론은 가족을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체계로 본다.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를 가족이라는 체계가 가지는 문제의 반영으로 생각하고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계란 “큰 환경 내에서 전체의 목표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분 또는 공통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고 상호 관련되는 부분의 집합체”이다.<sup>6)</sup>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대상(object), 속성(attributes), 관계(relationship), 환경(environment)의 4요소이다. 가족체계에서 대상은 가족의 구성원이며, 속성은 가족원 개인의 자질이나 가족 또는 가족원의 일반화된 목표 에너지 긴장 등이 포함되며 한 가족 체계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관계는 가족체계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이다. 환경은 지역사회, 친척, 직업, 교육기관, 문화 등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체계를 분석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 1) 상호의존성

가족 체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족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련성이다. 가족체계는 가족원들 사이에 상호 관련성을 갖고 상호의존하고 있다. 가족원들은 필요에 따라 연합하면서도 성, 연령, 역할, 세대에 따라서 상위체계와 하위체계의 여러 위계질서를 갖는다. 각 하위체계들

5) A. S. Gyuman/D. P. Kniskern,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1991), 3-19쪽; 고 병인, “목회와 가족상담,” 223쪽에서 재인용.

6) 신 유근, 「조직론」(서울: 다산출판사, 1990), 72-76쪽; 정 민자, “가족 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4쪽에서 재인용.

7) C. Broderick,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W. R. Burr(들)(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Free Press, 1979), 112-119쪽; 이 학중, 「조직행동론」(서울: 세경사, 1990), 36-60쪽;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5-7쪽. 이 글에서는 정민자의 글(p.6)에서 일곱 번째 특징으로 나타난 ‘위계질서’를 1) 상호 의존성에 포함시켰으며, 아홉 번째 특징으로 서술된 ‘등결과장’은 3) 안정 지향성에 포함하여, 7가지의 특징으로 분류했다. 그 이유는 ‘위계질서’와 ‘등결과장’의 특징은 1) 상호 의존성, 3) 안정지향성의 특징과 겹치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에는 경계 (boundary)를 갖고 상황에 따라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sup>8)</sup>

## 2) 전체성

가족원들을 항상 가족 전체의 맥락 내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 분석을 통해서만 체계는 이해할 수 없다. 가족원의 상호관계와 전체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 물론 개인의 중요성도 인정되지만, 이 개인들이 서로 관련되면 개별적인 존재보다 더 큰 힘과 생명력을 갖는다. 즉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욱 강하다. 전체적인 가족 이미지, 가족진화, 가족이념, 가문의 명예 등은 가족 전체의 질과 특성을 반영한다. 개인은 그런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해야 더욱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sup>9)</sup> 또한 한 부분의 변화는 체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sup>10)</sup>

## 3) 안정 지향성

어느 가족이나 일련의 목표를 유지 달성하기 위해 가족원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가족체계의 목적은 가족원들간의 균형화(equilibrium)를 통하여,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에 가족의 목표를 수정하고 재수립하면서 가족체계는 변모 성장한다. 가족은 상황에 따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동요하는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움직이게 한다. 가족은 반드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앞의 안정된 상태에서부터 약간씩 차이가 나는 안정 상태를 갖게 된다.<sup>11)</sup>

## 4) 입력과 산출 및 전환과정

가족체계에는 환경으로부터 요구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가족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원들의 과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입력이 있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들과 자극들이 가족체계에 입력됨으로써 가족체계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어떤 중

8)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5쪽.

9)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5쪽.

10) 김 유숙,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2000), 22쪽.

11)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5쪽.

류의 입력내용과 에너지, 사건들, 자극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가족체계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전환과정이 가족체계를 움직이고 그 결과 가족체계의 기능-역기능화 및 가족원의 행동 및 적응패턴이 나타나게 된다.<sup>12)</sup>

#### 5) 폐쇄성과 개방성

가족체계는 일반적으로 개방체계이다. 만일 가족체계가 내부 및 외부 환경과 상호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폐쇄체계가 된다. 즉 자기 외부로부터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연 소화 부패되는 경향을 띠고 혼란과 무질서의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가족이 개방체계로 작용한다는 것은 투과성을 갖고 환경과 자료, 에너지 정보 등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sup>13)</sup> 이는 등결 과정으로 이어진다. 등결 과정이란 유사한 궁극적인 목표, 상태를 다른 방식과 다른 대안들을 사용하더라도 성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어떤 경우엔 경제적 해결, 친밀감의 형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 수 이상으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 6) 자기 규정성 및 통제 메카니즘

가족체계는 가족의 목표를 추구하고 항상성을 위해서는 일련의 상호작용패턴을 형성하고 가족의 규칙을 갖고 있다. 즉 시간에 걸쳐, 가족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자기 규제성을 갖는다. 그런데 가족은 매 상황마다 매년마다 한 가지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요구에 통제 메카니즘의 신속한 변형을 요구한다. 그럴 경우 기존의 가족체계의 유지와 자기 규제성을 강력히 작용시킬 때는 주로 부정적 피드백을 사용하여 체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만일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가족규칙과 가족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차원의 가족체계를 강조하고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긍정적 피드백의 메카니즘을 사용한다. 그런데 가족의 내적구조가 대처를 못하거나 깨어질 수도 있고

12)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5쪽.

13)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6쪽.

어떤 경우는 혁신적인 규칙을 창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체하는 기제를 형태 전환적(morphogenesis)이라고 한다.<sup>14)</sup>

### 7) 기능분화

가족 체계가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분화가 잘 되어야 하고 이렇게 분화된 기능의 인식과 차이를 서로 받아들이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sup>15)</sup> 상호작용이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경계선이 명확해야 하고, 위계질서, 권력의 분배, 가족의 규칙, 부모의 권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각 역할자는 주도자, 추종자, 반대자, 방관자가 있어서 가족원, 가족 하위 체계간에 누가 그 역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체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 3. 구약성서의 가족

### 1) 구약성서의 가족구성

구약성서는 아담과 하와, 즉 한 부부와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로 구성된 한 가정으로 시작한다. 그 가정에서도 형제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살인으로 이어진 문제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서는 가정이라는 사회구성의 최소한의 단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하지만 성서는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만 묘사하지는 않았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는 큰 아들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노아의 홍수이후, 다시 시작된 인류의 증가는 바벨탑 사건이후 흩어져 세계 각국에 거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선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 창세기 12 -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의 12아들은 이후의 역사에서 형성될 12지파의 시조가 되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시조가 된다. 하지만 족장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었지만, 가족문제는 복잡하게 전개된다. 아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대신하여, 하녀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아들까지 낳

14)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6쪽.

15)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6쪽.

게 된다. 그러자 사라와 하갈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인하여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에서는 부모님 뜻과는 반대로 현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부모의 속을 끓이게 했고, 야곱 역시 네 명의 아내를 두게 되자, 아내들끼리 시기와 질투로 역시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다. 창세기의 족장사(창 12 - 50장)는 오늘날에도 발생 가능한 종류의 모든 가족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 가족 문제의 교과서라고 불릴만하다. 하지만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섭리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나간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와의 은혜, 기적의 수혜자라는 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광야생활중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아웨와 언약의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성민이 되었다(출 19: 6).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다.<sup>16)</sup>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한 가족, 한 민족이 되었다.

가나안 정착이후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은 크게 3 단계로 나뉜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בֵּית אָבִיב**(베트 아브/가정, 가족)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버지의 집”이다. 여기에는 가장과 아내, 자녀들, 결혼한 자녀의 경우 그들의 아내와 자녀에 종들까지 포함한다. 즉 2-4세대가 한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구약성서 시대는 대가족이 일차적 단위이다. 대가족의 최고 지도자는 가장이다. 두 번째로, 가족이 모인 씨족의 성격을 지닌 단위로 **מִשְׁפָּחָה**(미쉬파하/씨족, 확대가족)라고 불리며 개역성서에는 “족속”으로 번역되어 있다. 하나의 족속은 20개 정도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마을 자체를 방어하거나 다른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크기였다. 셋째로는 족속이 모인 단위로 **מַדְבָּר**(마데/지파)로 ‘지파’라고 불린다.<sup>17)</sup> 민수기 4장에 의하면, 레위지파는 고향족속, 게르손족속, 므라리 족속으로 구성되어있다. 지파는 공통된 조상을 가진 혈연

16) 출 12: 38에 의하면,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을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지파’의 또다른 히브리어는 **שֵׁבֶט**(셰벳/지파)이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팡이, 홀’이다. 따라서 한 지도자의 영향하에 놓인 무리들을 의미한다 (참고 왕상 8: 16). 구약성서에서 지파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창 49:16; 민 24:2; 수 7:16 등이다.



이며,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 당시의 가족은 땅의 소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한 가족에서 족속, 지파로 확대되는 당시의 제도는 농업활동의 필요에 적합한 제도였다. 이때 한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에서 개인이 맡은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이 범 죄했을 때, 그를 잡아내는 과정은 지파-족속-가족의 형태로 된 당시의 가족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수 7: 14). 이스라엘 가족제도의 근간은 부계 중심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없을 경우 여성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민 27: 1-11; 36: 1-12; 수 17: 3-16).

왕정시대가 도입된 후 이스라엘의 가족제도는 국가주의 하에 놓이게 된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나 제도의 변화보다는 왕정의 도입으로 가족 개념이나 제도가 왕정에 의하여 침범당하기도 한다. 또한 확대가족 보다 확대된 “족속”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משפחה**(미쉬파하)는 보다 큰 사회적 그룹이나 국가(창 10: 5, 32; 12: 3; 암 3: 2; 렘 33: 24), 심지어 동물까지 포함한다 (창 8: 19).<sup>18)</sup>

기원전 586년 유다의 멸망으로 지배층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기원전 539년 귀환 515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이때 **בית אב**(벤-아보트)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가족 단위는 사사시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sup>19)</sup> **בית**라는 용어는 에스라-느헤미야-역대기에 약 65회 나온다. 이는 신명기 역사서에서 단 6회 등장한 것과는 매우 큰 변화이다. 이 용어는 확대되어 약 800-1000명의 남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통적인 **משפחה**를 대체한다.<sup>20)</sup> 이리

18) J. Blenkinsopp, “The Family in First Temple Israel,” L. G. Perdue(들)(ed.),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JK Press, 1997), 49-50쪽.

19) J. Weinberg, “Das Bēit ‘Abōt im 6-4 Jh. v.u.Z.,” *VT* 23 (1973), 400-414쪽; D. L. Smith, *The Religion of the Landless*, (Oak Park, Ill.: Meyer-Stone Books, 1989), 102-108쪽; J. Blenkinsopp, “Temple and Society in Achaemenid Judah,” P. R. Davies(ed.), *Second Temple Studies*, vol.1: *Persian Period* (JSOTSS 117), (Sheffield: JSOT Press, 1991), 47-48쪽; J. J. Collins, “Marriage, Divorce, and Family in Second Temple Judaism,” *Families in Ancient Israel*, 105쪽.

20) Smith, *Religion of the Landless*, 115쪽; Collins, “Marriage, Divorce, and Family in Second Temple Judaism,” 105쪽.

한 그룹의 기능은 족보에 나타난다. 족보를 통해서 포로이전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에스라 2장 59-63절에서, 우리는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 할 수 없지만” 포로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도 없었다. 포로후기에서 **בֵּית**는 포로후기 사회를 구성했던 실제적인 가족 단위였다. 이에 대하여 와인버그 (Joel Weinberg)는 **בֵּית אֲבוֹת**를 ‘집단적인 것’이며 ‘땅의 공동 소유에 근거한 의식적인 연대감’이라고 주장했다.<sup>21)</sup> 포로 후기에 땅에 근거한 가족 공동체주의는 다시 부흥하게 된다. 작고 가까운 가족 단위인 **בֵּית**가 보다 더 멀고 큰 가족단위인 **הַשִּׁבְטִים**의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족개념은 더 밀착되었다. 이는 땅의 소유와 관련된 포로 후기 공동체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의 조상, 즉 가족에서 출발하여 족속, 지파, 국가를 이루는 민족 공동체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는 아웨 신앙하에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유지되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이나 개인의 정체성은 아니었다. 즉 개인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집안, 족속, 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개념 하에서 정의되었다. 즉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 5-6).

그러나 철저한 개인주의화 경향도 포로기를 전후하여 등장한다. 개인주의를 처음으로 표방한 자는 예언자 예레미야였다: “그 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렘 31: 29-30). 즉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갈 수 밖에 없는 절망 앞에 놓인 백성들에게, 조상 탓하지 말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만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에스겔의 말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비록 노아, 다니엘,

21) Weinberg, *Bet 'Abot*, 61쪽.

웁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겔 14: 14, 20);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쩔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겔 18: 2-3). 조상의 잘못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죄의 유전 뿐만 아니라 의의 유전도 단절함으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책임질 것을 선포한다. 이는 개인주의에 대한 선언문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가족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포로 상황에서 조상 때문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선포된 것이었다.

## 2) 가족간의 상호의존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약성서에서 가족 개념은 온 민족으로 확대되어 있다. 즉 강한 공동체 정신이 구약성서 내에 깔려있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였으므로, 가족제도는 가족간의 상호의존의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고엘 제도가 있다. גֹּאֵל(고엘)은 גָּאַל(가알/되싸다) 동사에서 온 명사형이다. 동사의 의미는 “속량하다, 구하다, 구원하다” 등이다. 이 동사는 히브리어 외에는 아모리어의 인명인 *Caïtalum*에 유일하게 나올 정도로 드물지만, 구약성서와 유대교 아람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sup>22)</sup>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척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레 25장 48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팔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속량해야 할 임무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게 된다. 이때 언급되는 순서는 형제, 삼촌, 사촌, 그의 친척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다. 어떤 사람이 집이나 밭과 같은 부동산을 팔 경우, 그것을 살 권리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

22) HALOT, 169-170쪽.

라,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다. 그것을 살 권리를 **קָנָה**(거울라)라 부른다(레 25: 25-34).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의 삼촌 하나멜의 딸을 **קָנָה** 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렘 32: 6-15).

형사 취수법 또한 고엘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신 25: 5-10). 룯기의 경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룯의 고엘이 되어 결혼하게 되지만, 보아스 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 그 친척은 땅은 살려고 하지만,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아스는 땅도 사고 결혼도 하겠다고 받아들인다 (룯 4: 9-12). 창 38장의 경우 형사 취수법에 해당한다. 유다의 장남인 엘은 다말이라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자식 없이 죽었다. 유다의 둘째아들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한 자녀를 낳아야했지만, 거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죽었다.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어렸으므로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유다의 임무소홀로 다말은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맺는다. 이 이야기는 고엘제도의 극단적 한 예에 해당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해되었다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קָנָה גֹּאֵל**(고엘 하담), 즉 '피의 복수'라고 부른다. 이 제도 역시 고엘 제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무고한 피는 반드시 속량을 통하여 보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복수할 첫 번째 책임은 죽은 사람의 아들이 가지며, 그 다음에 친척들이 가진다. 피의 복수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살인자 혹은 살인자의 친척을 죽여야 한다.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피할 수 있었다 (민 35: 12, 19-27; 신 19: 6, 12; 수 20: 2-9).

구약성서는 궁극적으로 야웨가 고아와 과부의 고엘임을 이야기한다 (잠 23: 11; 렘 50: 34). 시 74편 2절에서, 야웨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야웨가 “얻으시고 속량하사(לְקַח)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고 이스라엘을 언급한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돈없이 속량되리라(לְקַח)”(사 52: 3)라고 예언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매장 제도 역시 가족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묘지에 매장되기를 소원했으며 (삼하 19: 38), 그들이 살던 집에 매장되기도 했다 (삼상 25: 1; 왕상 2: 34).

#### 1) 구약성서의 하나님의 가족 이미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족장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בית-אֲבְרָהָם (베트-아브), משקחה (미쉬파하), מִצְרָיִם (마테), אֱשֵׁרָאֵל (이스라엘)로 확장시켜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만드신 분이며, 현재에도 지켜주시며, 미래도 약속하신 분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인류에 대한 구속사를 이어가신다.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 가족으로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땅, 국가에 대한 주요한 은유들이 가족제도에서 나왔다. 하나님은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로 이해되었다(신 32: 6; 렘 3: 4; 말 2: 10).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출 4: 22; 사 63: 16; 렘 3: 19; 31: 9; 호 11: 1).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은 어머니로 묘사되기도 했다(신 32: 18).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אִמּוֹתָם (라하뫼)은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רֵחֶם (레헴)에서 왔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강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원한 고엘(위기에서 구해낼 가장 가까운 친척)의 역할로 묘사되었다(출 15: 13; 시 74: 2; 77: 15; 78: 35).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고아와 과부의 고엘이기도 하다(욥 19: 25; 시 19: 14; 78: 35; 사 41: 14; 43: 14; 렘 50: 34; 시 146: 9).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야웨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한다(렘 2: 2). 호세아는 그의 결혼 은유를 통하여 야웨를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로 설명한다(호 2: 14-15).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부부, 친척 등의 가족관계를 통하여 표현되었다.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족속, 가족에 이르기까지 친족관계임을 잘 나타낸다.

#### 4.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른 구약성서의 가족

##### 1) 상호 의존성

구약성서는 개인을 독립된 자아로 다루지는 않는다. 한 사람은 집안, 족속, 지파, 국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구

약성서에서는 가족원끼리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제도인 가부장 제도하의 가정을 이야기한다. 한 개인은 아들로써, 형제로써,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체계이론이 주장하는 대로, 구약성서는 개인을 가족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이해한다. 집안에서의 위계질서 역시 강했다. 가장으로부터 하위체계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가족 사회였으므로 형제들 사이, 남녀 가족원 사이의 경계도 뚜렷했다. 나아가, 족속, 지파, 국가, 하나님에 이르는 하나의 수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상호 의존성은 현대의 체계이론이 주장하는 의존도 보다 더 밀접하고, 더 확대된 개념이다.

## 2) 전체성

구약성서는 가족이해는 전체적 관점을 가진다. 국가, 지파, 족속, 가족이라는 전체적 체계 속에서 가족은 이해된다. 가족, 가문의 정체성이나 명예에 대한 관심은 족보 속에 나타난다. 이 족보는 창세기 5장에서 시작하며, 사사시대, 왕국시대를 거쳐 페르시아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족보의 존재는 개인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의미이다.

노아라는 한 개인의 의로 말미암아 노아의 온 가족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조카 롯의 온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에스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게 된다. 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심판을 받기도 한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 가족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수 7: 1-26), 사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가족이 대신 처벌을 받았다 (삼하 21: 1-14). 즉 구약성서에서 개인과 전체는 분리될 수 없다. 개인이 전체와, 전체가 개인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 1) 안정 지향성

구약성서는 가족이 일련의 목표를 유지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관계임을 잘 나타낸다. 가족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을 낳

아 영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창 3: 16-19). 만약 자녀 없이 죽어서 그 영속성을 헤치게 될 때, 형사취수법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가족의 안정을 찾아나가도록 했다.

#### 4) 입력과 산출 및 전환 과정

구약성서에서 가족의 위기를 몰고 온 잘못된 입력의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는 부부간에 발생하는 위기이다. 주로 불임이나 불륜으로 인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불임하게 되자,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후에 사라 또한 이삭을 낳게 된다. 그러자 하갈과 사라 사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창 16, 21장). 다윗의 삶에는 잘못된 입력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탄생한다. 다윗의 삶에 입력된 밋세바로 인하여, 솔로몬을 낳게 되었고,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와 왕위쟁탈전을 벌이게 되고 서로를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왕상 1: 1 - 2: 25). 또한 만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책임지지 않게 되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마침내 다윗까지 위협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즉 가족체계 한 부분의 변화로 인하여 전 체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형제간에 발생하는 예이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 요셉과 그 형들 이야기 등, 창세기에도 많은 예가 발생한다. 형제간에 위기를 입력시킨 유발요인은 장자권, 시기와 질투 등이다. 그런데 그 발생 과정 및 해결과정에 있어서, 가족의 최상위층인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 개념은 신학적으로 섭리로 이해된다.

#### 5) 폐쇄성과 개방성

성서에서 가족의 폐쇄성과 개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그 가족은 질서와 번영이 보장되는 개방성을 띠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폐쇄체계가 되어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근거는 근본적으로 율법에 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창 39: 2, 21, 23), 형들이 그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지만, 요셉은 위기상황을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

리에 오름으로써 등결 과정에 이른다. 그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 45: 5-8). 즉 하나님이 등결 과정에 이르도록 지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된다.

#### 6) 자기 규정성 및 통제 메카니즘

가족체계의 움직임에는 어떤 규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구약성서에 서 가족체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규칙은 율법이다. 가족 내에서 통용되는 규칙은 주로 잠언서에서 발견된다. 크렌쇼가 이야기하는 씨족 잠언(clan wisdom)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가장이 해야 할 임무이다. 신앙에 대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수 4: 6-8).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율법이다. 즉 세속적인 규칙은 씨족 잠언이나 지혜와 같은 규범을 통하여, 신앙교육은 율법을 통하여 가정을 규정하고 활동해 나갔다.

#### 7) 기능분화

기능주의 인류학자에 의하면, 가족의 기능은 경제적 생산 활동, 성행위를 통한 자녀생산, 교육과, 재판의 기능 등이다.<sup>23)</sup> 구약성서는 가족원간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남녀노소가 한 구성원을 이루는 관계로 가족 내에서는 남녀노소간의 역할분담은 전통적 농경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남자는 힘든 육체노동을, 여성은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했다.

### 5. 맺는 말

체계이론을 통해 구약성서 내에 나타난 가족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족이해는 현대의 가족문제 해결에 이용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사례들이 신학적 메시지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가족은 하

23) G. P. Murdock, *Social Structures*, (New York: Macmillan Co., 1949); C. Meyers, “The Family in Early Israel,” *Families in Ancient Israel*, 23쪽에서 재인용.



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재된 것이며, 한 가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 가족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뜻을 유지하며 이루게 하신다. 따라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족문제의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의 가족문제에 대한 성서적 메시지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은 충분하며, 가족문제에 대한 연구 또한 정당하다.

체계이론을 통한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족이해의 지평을 넓혀 준다. 둘 사이의 비교에서 가장 큰 유사성은 가족에 대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강조이다. 구약성서는 '고엘'이라는 제도와 개념을 통하여 가족원 사이의 다양한 상호의존 제도를 가능케 하고 있다. 체계이론 역시 개인을 하나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의존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 개념은 구약성서에 매우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그러나 체계이론은 가족 역시, 보다 큰 공동체와 상호 의존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가족이해는 체계이론이 간과한 점을 보완해 준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족이해는 체계이론이 제시하는 방법론과 차이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견해이다. 체계이론의 가족에 대한 범위는 핵가족 내지는 확대가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서에서 가족의 범위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의 가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노예생활을 했던 경험을 확대시켜, 그 가족의 범위에 노예들과 가족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족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교회를 넘어서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더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체계이론과 비교해서 지적할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은 구약성서는 가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가족의 가장이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등을 가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에게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족의 문제를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 역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 6. 참고문헌

- 고 병인, “목회와 가족상담,” 「순신대학교 논문집」 제 3호 (1992), 221-239쪽.
- 김 유숙,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2000).
- 김 종욱,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전략적 가족치료와 체계론적 가족치료의 비교분석,” 「신학논단」 제 20집 (1992), 211-246쪽.
- 신 유근, 「조직론」 (서울: 다산출판사, 1990).
- 이 학중, 「조직행동론」 (서울: 세경사, 1990).
- 정 민자,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논문집」 제 1권 (1991), 117-136쪽.
- Blenkinsopp, J., “Temple and Society in Achaemenid Judah,” P. R. Davies(ed.), *Second Temple Studies*, vol.1: *Persian Period*, (JSOTSS 117), (Sheffield: JSOT Press, 1991), 44-67쪽.
- Blenkinsopp, J., “The Family in First Temple Israel,” L. G. Perdue et al(eds.),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JK Press, 1997), 49-73쪽.
- Broderick, C.,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W. R. Burr et al(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Free Press, 1979), 112-119쪽.
- Collins, J. J., “Marriage, Divorce, and Family in Second Temple Judaism,” L. G. Perdue et al(eds.), *Families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WJK Press, 1997), 105-127쪽.
- Gyuman, A. S./D. P. Kniskern,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1991).
- Smith, D. L., *The Religion of the Landless*, (Oak Park, Ill.: Meyer-Stone Books, 1989).
- Weinberg, J., “Das Bēit 'Abōt im 6-4 Jh. v.u.Z.,” *VT* 23 (1973), 400-414쪽.

검색어

가족치료

가족 체계 이론  
구약성서의 가족  
고열

---

## Family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Family Systematic Theory

---

**Yoon-Jong Yoo**,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Malsook Seok**, Ph.D.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Bible is an absolute norm in Christians' lives. Christians consider the Bible as a primary criterion in judging and constructing their lives. Accordingly, the attempts to draw a life model from the Bible can be justified. However, the Bible was formed from 1150 BC to 100 AD in ancient Near East. There is 3000 or 2000 years' and geographical gap between the Bible and today. How can we find proper hermeneutics to fill chronological and geographical gap? In addition, systems in the Bible arose from different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al background. Can the biblical system give a clear answer to questions raised by 21st century's complicated circumstances?

Based upon the aforementioned justification and limitation on getting answer to family problem questioned by modern situation, I will pursue whether the Old Testament provides enough resources from which a model could be established in solving present family problem and give a fruitful answer with analyzing and understanding family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family systematic theory which is the most popular family therapy theory among present family therapeutic theories.

I classified seven categories borrowing from family systematic theory to analyze family in the Old Testament and then applied each category to examples in the Old Testament. Thus, I concluded that the Old Testament emphasized on interdependence among each family member through **גאול** system and ancient Israelite society in biblical times consisted of very systematic institution from **בית-אב** to God, thus provided enough examples for getting therapeutic answer from theological viewpoint for modern Christians. There are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on family in the Old Testament and family systematic theory. Both emphasize interdependence among each family member, but family systematic theory limits a study of object within a family. However, the Old Testament extends family from one individual to entire Israel even up to God. In addition, the Old Testament sees family from God's viewpoint. God's role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family in the Old Testament.

#### **Keywords**

Family therapy systematic family therapy family in the Old Testament  
Goel